

보도자료

[2014년 2월 14일]

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준비위

(전화) 02-924-0660

(팩스) 02-924-0670

<http://cafe.daum.net/newhis>

남성의 2%도 안 되는 여성 독립유공자의 현실, 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으로 해결

2014년 3월 1일(토) 3.1절 95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날에 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준비위원장 김희선)가 창립한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여옥사 앞마당에서 창립총회와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의 특강을 마친 후 유명·무명의 여성독립운동가를 추모하는 다례(茶禮)를 해설을 곁들여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강연은 “왜, 지금 여성독립운동을 말하는가!”를 주제로 진행되는데, 해방된 지 69년인 지금 여성독립운동의 기념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될 것이다.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인물이 남성 12,000명인데 비해 여성은 200명 수준이다. 남성의 2%에도 못 미치는 여성독립운동가의 수치는 마치 여성이 우리 역사발전에 기여한 바가 없는 양 평가절하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남성 12,000여명 곁에는 어머니, 부인, 며느리, 딸, 누이 등 수많은 여성이 함께 했기에 독립운동이 가능했던 것이다.

오늘날 여성의 지위가 많이 향상된 듯 하지만 정작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연구조사, 기념사업은 너무나 미진한 상태이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역사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기꺼이 자신을 헌신했던 독립운동의 역사를 제대로 찾아 기념하여 미래세대가 본받을 교훈으로 삼는 것이다.

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앞으로 역사 속에 묻혀있는 여성독립운동의 역사를 발굴하여 재정리하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공동선을 향한 우리사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초대의 글

왜?

지금 우리는 여성독립운동을 말하는가!

200 대 12,000

해방 69년! 지금까지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남성은 12,000명, 여성은 200명에 불과합니다. 남성의 2%도 안되는 이 숫자처럼, 우리 역사발전에 기여한 여성의 역할이 이 정도라는 걸까요?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에 모두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할 역사적 책임이 있습니다.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일제 36년 통한의 세월이 왜곡되고 묻개지고 묻혀버린 채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 땅의 할머니, 어머니, 고모, 이모, 누이들의 항일투쟁, 독립운동사를 발굴·기념하고, 실천단계부터 하나씩 미래세대와 소통해야 할 때입니다.

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와 함께하실 뜻있는 분들을 모십니다.

2014년 2월

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준비위원장 **김희선** 올림

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창립대회 행사 안내

- 일시: 2014년 3월 1일(토) 오후 3시~5시
- 장소: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5번 출구)
- 일정: 15:00 창립총회
15:30 기념강연: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소장)
16:00 창립기념 여성독립운동가 추모 다례(茶禮)
- 주최: 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준비위
- 문의 및 참가신청: 02-924-0660 / 010-3911-1588
- 인터넷카페: <http://cafe.daum.net/newhis>